

227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7. 4. 3



—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가계 부채 현황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가계 부채 현황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시민 관심 경제 이슈: 가계 부채 현황	19
	부록: 2017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23

김 범 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i.re.kr

서울의 산업생산은 감소 추세이나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는 증가

2017년 1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개월 증감률 평균도 -1.9%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9~10월 두 달 연속 하락했던 전국 제조업의 산업생산지수는 11월부터 반등하여 3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백화점의 성장은 주춤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월 기준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도 508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 감소한 86만 7천 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탄핵정국, 사드 배치 문제 등 불확실성 확대로 급랭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7년 1/4분기 83.2로 전 분기 대비 7.9p 하락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11.6p 줄어든 75.1이었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87.5로 전 분기보다 5.5p 하락하였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2.7p 하락한 40.7을 기록했지만, 「미래경기판단지수」는 1.0p 하락한 68.7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2.4로 전 분기 대비 2.9p 하락하며 2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8p 상승한 91.5로 반등하였다.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과 주택구입 의사도 모두 하락하였다.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2.7p 하락한 82.6,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7.0p 하락한 66.4로 각각 조사되었다. 특히 「물가예상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크게 하락하여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생활 자금 중심으로 가계 부채 보유 가구는 10%p 이상 증가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64.7%로 전 분기 대비 11.5%p 증가하였고, 월 평균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은 18.7%로 전 분기보다 1.7%p 증가하였다. 가계 부채 사용용도 1순위는 '주택 관련 자금'이지만, 1~3순위를 합하면 '생활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된 대출 이용처는 '시중은행'과 '카드사'였으며, 대출 형태는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출금리 인상 시 소비수준 변화가 큰 품목은 '의류비'와 '문화오락비'였으며, '교육비'와 '개인보장지출'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서울의 산업생산은 감소 추세이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증가

2017년 1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

- 2017년 1월 제조업으로 본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 하락
- 2015년의 지속적 침체를 딛고 2016년 상반기에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최근 5개월 증감률 평균은 -1.9%였으며 1월이 -4.7%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반면 지난해 9~10월 두 달 연속 하락하였던 전국의 「산업생산지수」는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부문별로는 2016년 9~11월 연속 1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자본재가 두 달 연속 소폭 감소
- 중간재는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4.0%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재도 4.1% 감소
- 최근 5개월 평균 기준으로 자본재(11.7%)는 증가하였으나, 중간재(-2.0%)와 소비재(-6.8%)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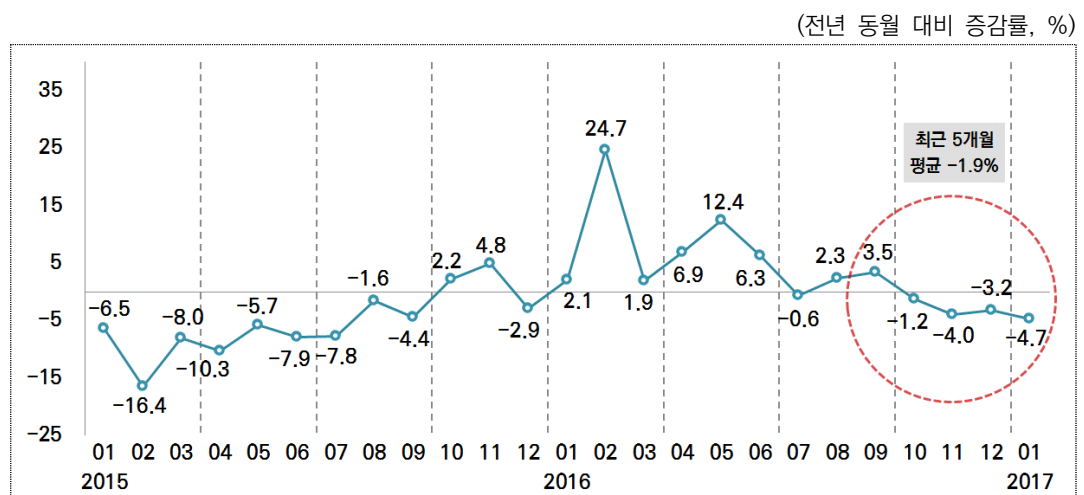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제조업)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¹⁾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

- 대표적 내수지표인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7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하여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최근 3개월간 증가세가 5~7%대로 작년 하반기보다 둔화되었지만, 5개월 평균 증가는 9.0% 기록
- 백화점의 성장세는 주춤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이 늘어나는 추세
- 대형마트 판매액은 1월 중 전년 동월 대비 17.3% 증가하였으나, 백화점 판매액은 7.0% 감소하여 3개월 연속 하락
- 최근 5개월간 백화점 판매액은 평균 0.5%로 제자리걸음이지만, 대형마트 판매액은 평균 17.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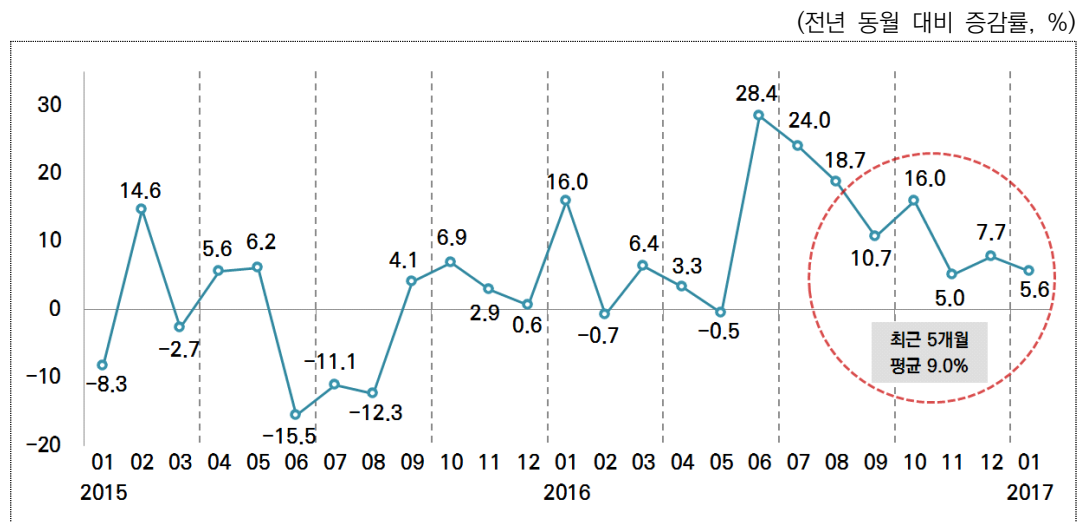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최근 2개월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때 연간보정으로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2017년 2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증가한 508만 7천 명
- 2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하여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서 탈피
- 2017년 2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7만 7천 명)보다 1.1% 감소한 86만 7천 명
-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6년 12월 -2.2%를 저점으로 2017년 1월 -1.8%, 2월 -1.1%로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는 추세
-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의 5개월 증감률 평균은 모두 -0.2%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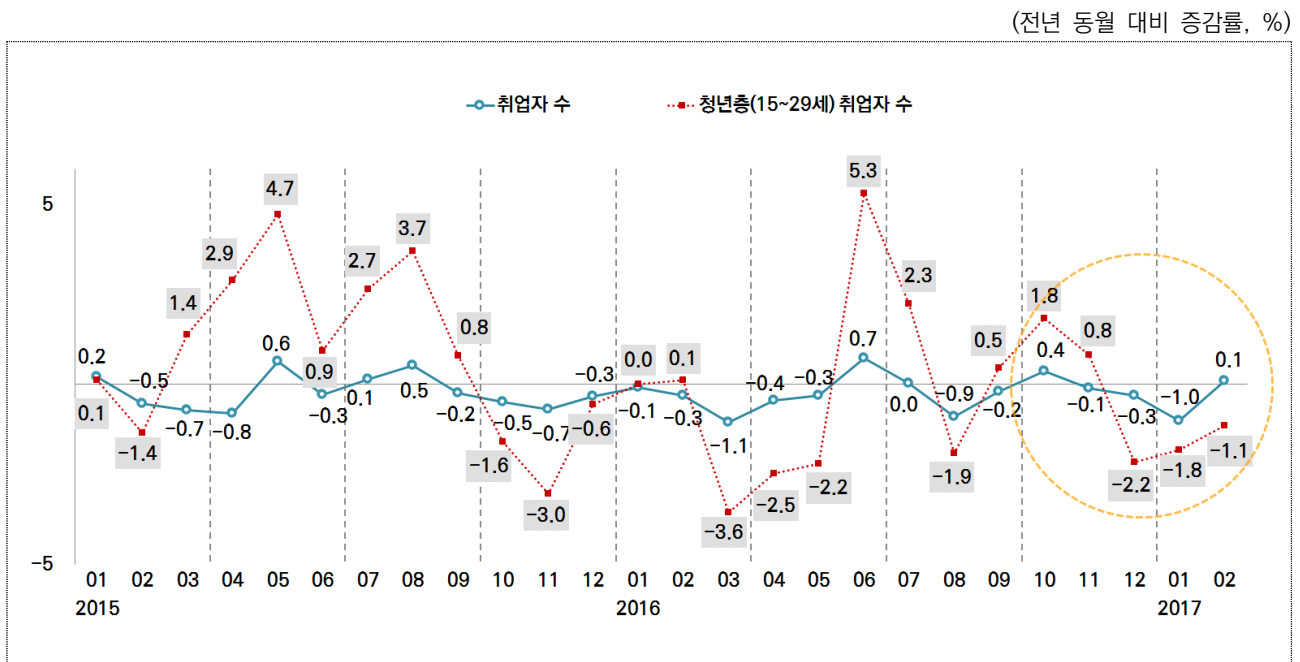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1/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급랭

서울의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2017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²⁾ 기준 83.2로 전(前) 분기보다 7.9p 하락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6년 4/4분기부터 2분기 연속 하락
- 탄핵정국,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체감경기 급랭
- 작년 4/4분기에는 국정농단 사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감 확대
- 특히 2017년 1/4분기에는 탄핵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등 대외 불안정성도 가중되어 소비자태도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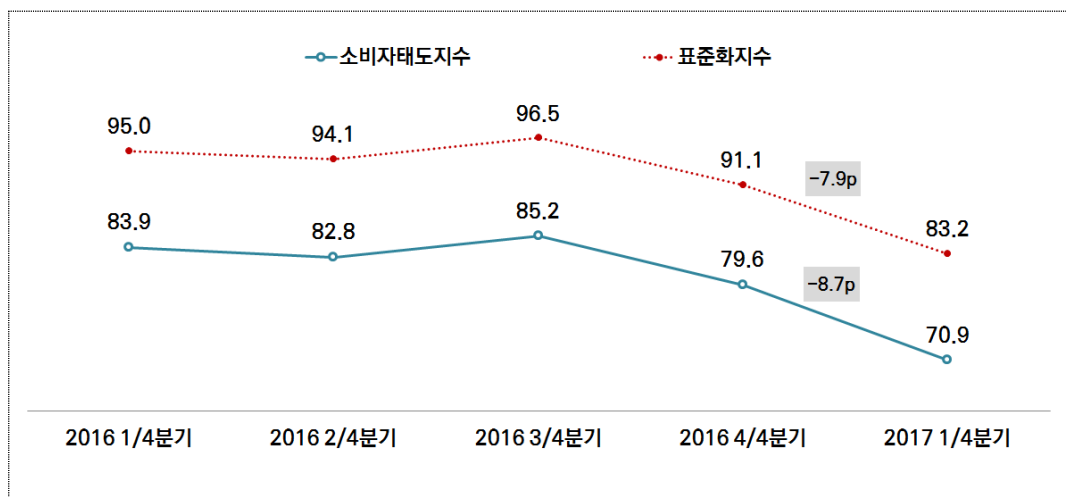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2)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시계열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서울의 현재생활형편과 미래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크게 하락

- 2017년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6p 하락한 75.1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70대로 조사되었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전 분기보다 5.5p 하락한 87.5
- 특히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 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각각 70 미만의 낮은 수준 기록
- 2016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2016년 4/4분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15년 4/4분기에 101.4를 기록한 이후 5분기 연속 기준치 (100)를 밑돌며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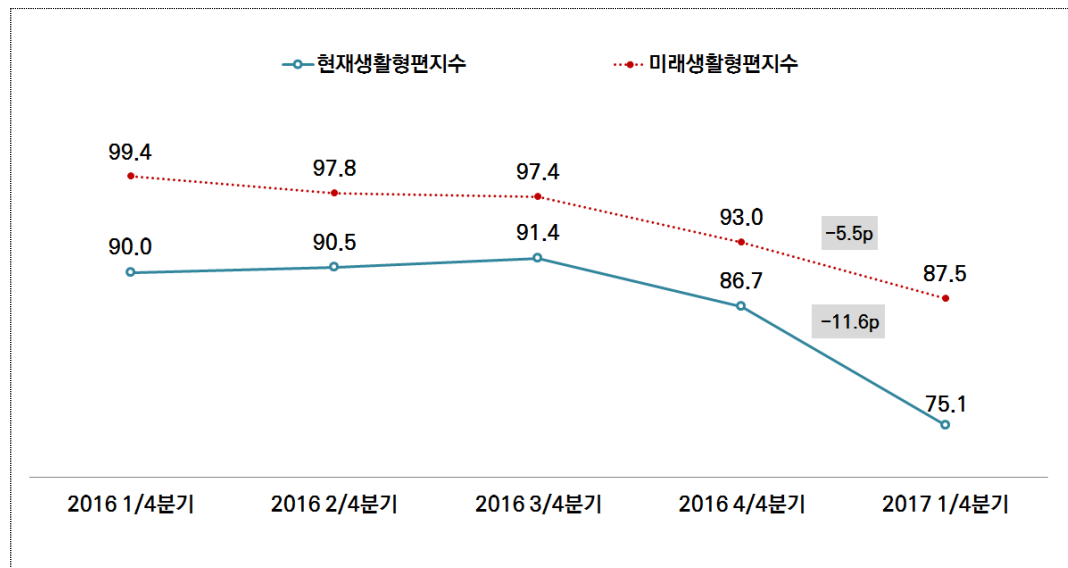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서울 전체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권역별로 큰 편차 없이 분포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권역 간 편차가 평균을 중심으로 5p 내외로 형성되어 있고, 그중 서북권이 가장 높고 도심권이 가장 낮게 조사
- 서울 전체 평균(75.1)보다 높은 곳은 서북권(77.9), 동남권(76.1), 서남권(76.0)이고 동북권(72.9)과 도심권(72.8)은 평균을 약간 하회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5개 전 권역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서북권이 77.9로 가장 높았으나 전 분기(92.5)에 비해 14.6p 하락하였고, 동북권도 13.5p 하락하는 등 서남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이 10p 이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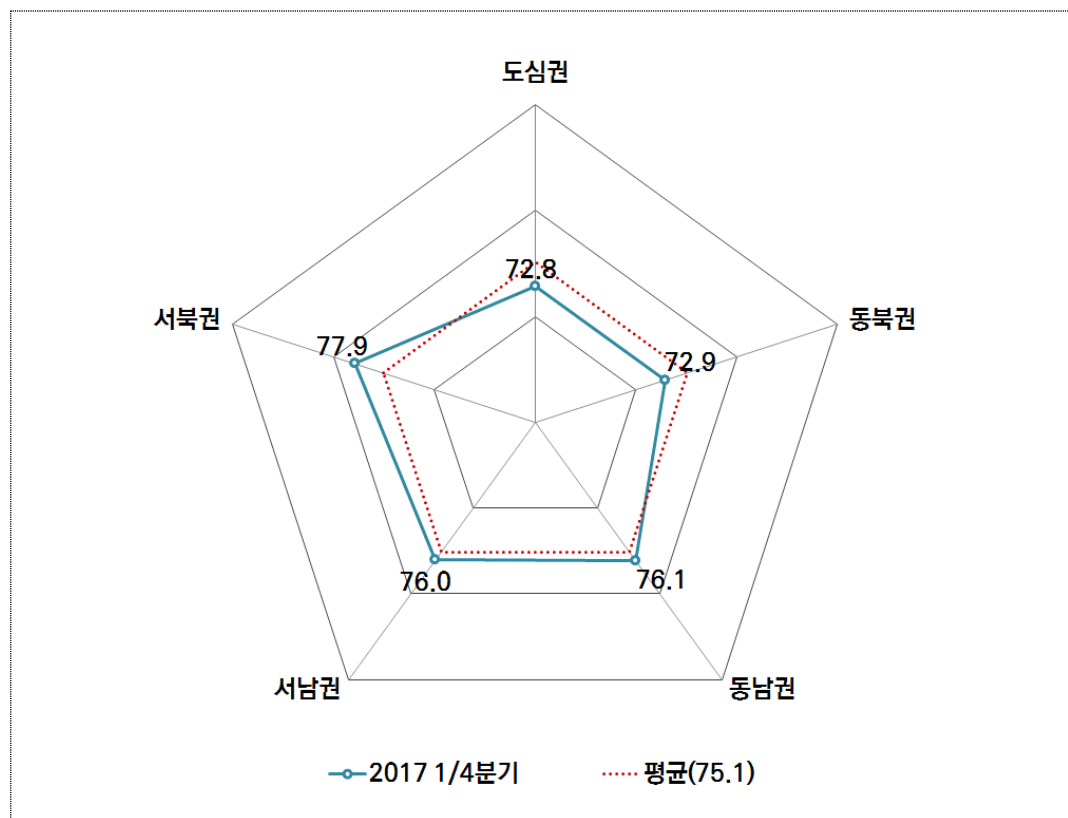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생활형편지수

현재 경기와 미래 경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비관적

- 2017년 1/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2.7p 하락한 40.7을 기록
 -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2012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40대에 진입
 -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50대에서 현재 경기를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 유지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p 하락한 68.7을 기록
 - 연 가구 소득 7,200만 원 이상 가구(71.7)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60대 기록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50대는 전 분기 대비 하락했고, 40대와 60대는 상승
-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이고, 경기회복 기대감도 저조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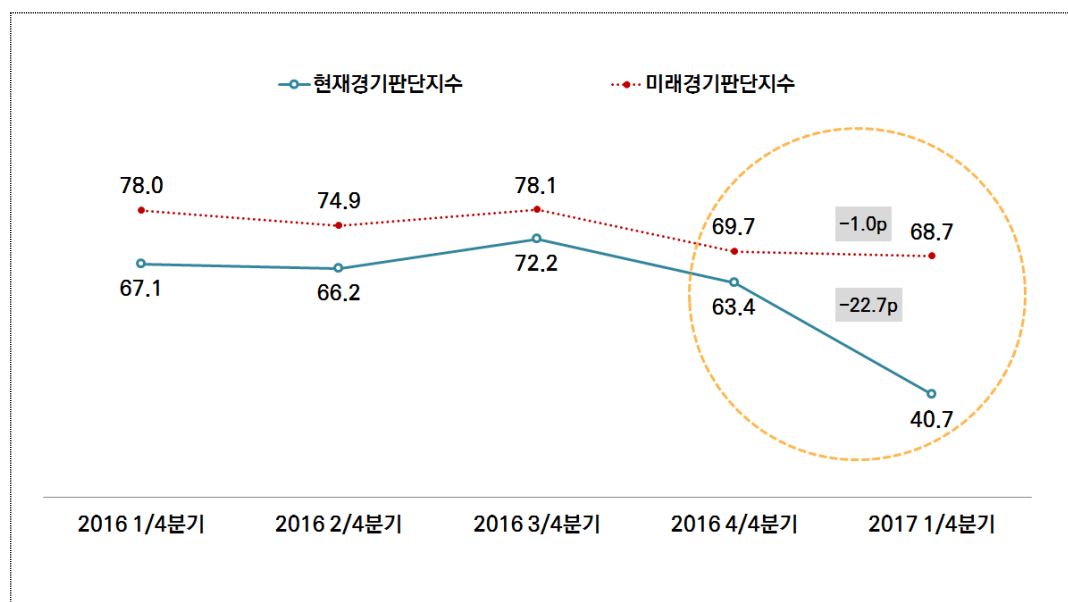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권역별로는 서북권이 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하며 미래 경기에 가장 부정적

- 서북권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7.0p 하락한 60.6으로 최저
 - 서북권은 전 분기 대비 7.0p 하락하여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도심권(71.4)도 4.0p 하락
 - 반면 동남권은 유일하게 전 분기보다 2.6p 오른 74.3으로 조사
- 미래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물가 상승과 소비지출 감소, 호전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조사
 - 미래 경기 악화 이유로는 ‘물가 상승’이 28.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 21.2%, ‘막연한 불안감’ 15.7%, ‘세계경기 하락’ 12.4% 등의 순
 - 미래 경기 호전 이유로는 ‘막연한 기대감’ 43.8%, ‘기타(정권 교체)’ 20.6%, ‘물가 안정’ 17.7%, ‘기업경기 회복’ 9.5%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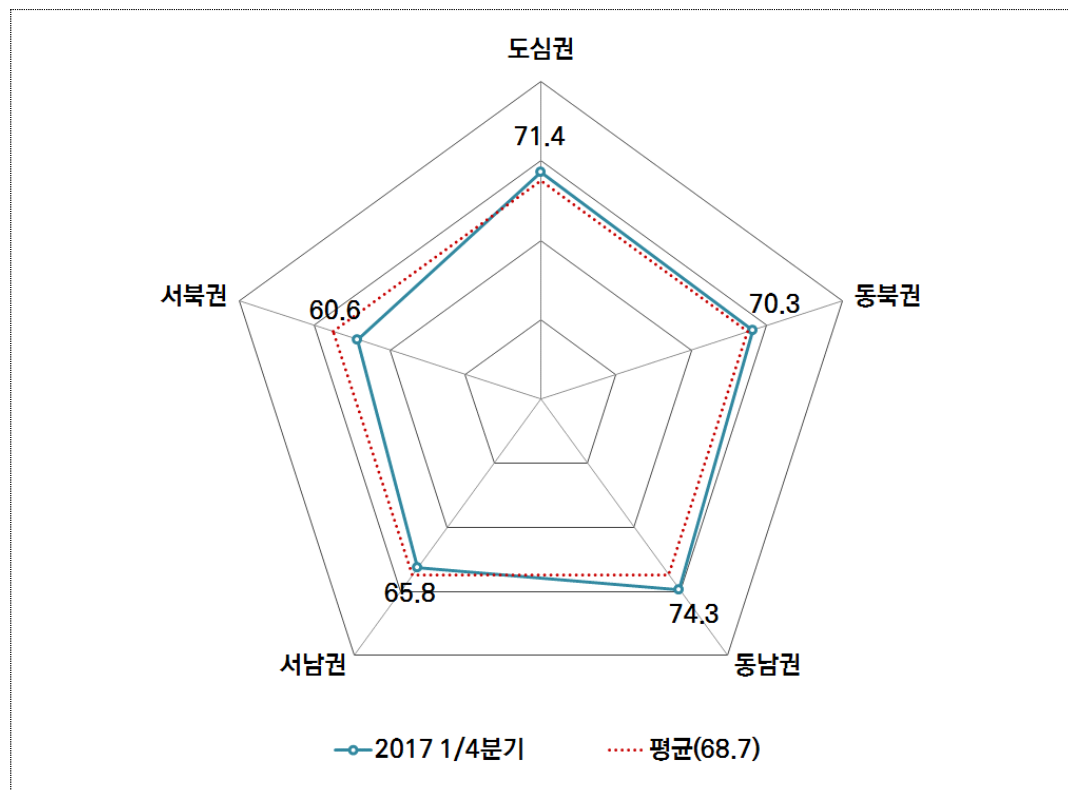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권역별 미래경기판단지수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하락했으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상승

- 2017년 1/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2.4로 전 분기 대비 2.9p 하락
 - 지난해 2/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상승하였던 「현재소비지출지수」가 4/4분기에 이어 2017년 1/4분기에도 하락
 - 연령별로는 60대가 전 분기 대비 3.5p 상승했으나,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하락
- 반면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2.8p 상승한 91.5
 - 지난해 2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였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반등하며 90대 회복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만 전 분기 대비 1.9p 하락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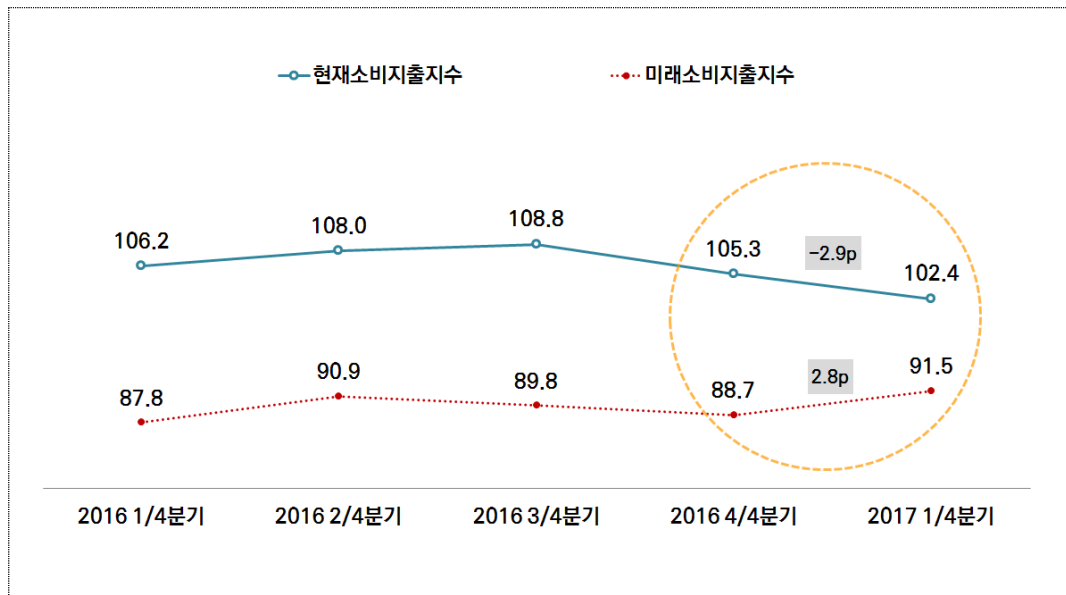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은 식료품비와 의류비만 전 분기보다 하락

- ‘교육비’는 전 분기보다 7.6p나 상승한 108.8이었으며, ‘문화오락비’도 6.0p 상승한 80.7로 조사
- ‘교육비’는 연말 입시 등 진학 영향 및 새 학기를 맞아 2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판단
- 그 외 ‘주거비’와 ‘교통/통신비’ 역시 각각 3.3p, 1.9p 상승
- ‘식료품비’는 2분기 연속, ‘의류비’는 3분기 연속 하락세
- ‘식료품비’가 -1.8p로 가장 크게 하락한 가운데, ‘의류비’도 -0.3p의 소폭 하락
- ‘의류비’ 지수가 유일하게 70대를 기록하여 가장 낮았고, ‘문화오락비’는 상승하여 80대 회복
- 지난해 내내 70대에 머물렀던 ‘문화오락비’가 6.0p의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며 80대로 상승
- 그러나 여전히 ‘교육비’만 기준치 100을 웃돌고, 다른 지수들은 100 이하 기록
-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교육비’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판단
- 최근 주택 및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가 100에 근접한 98.3을 기록하였고, ‘교통/통신비’와 ‘식료품비’도 각각 90 이상을 기록
- 이외에 ‘문화오락비’와 ‘의류비’는 각각 80.7과 73.7로 여전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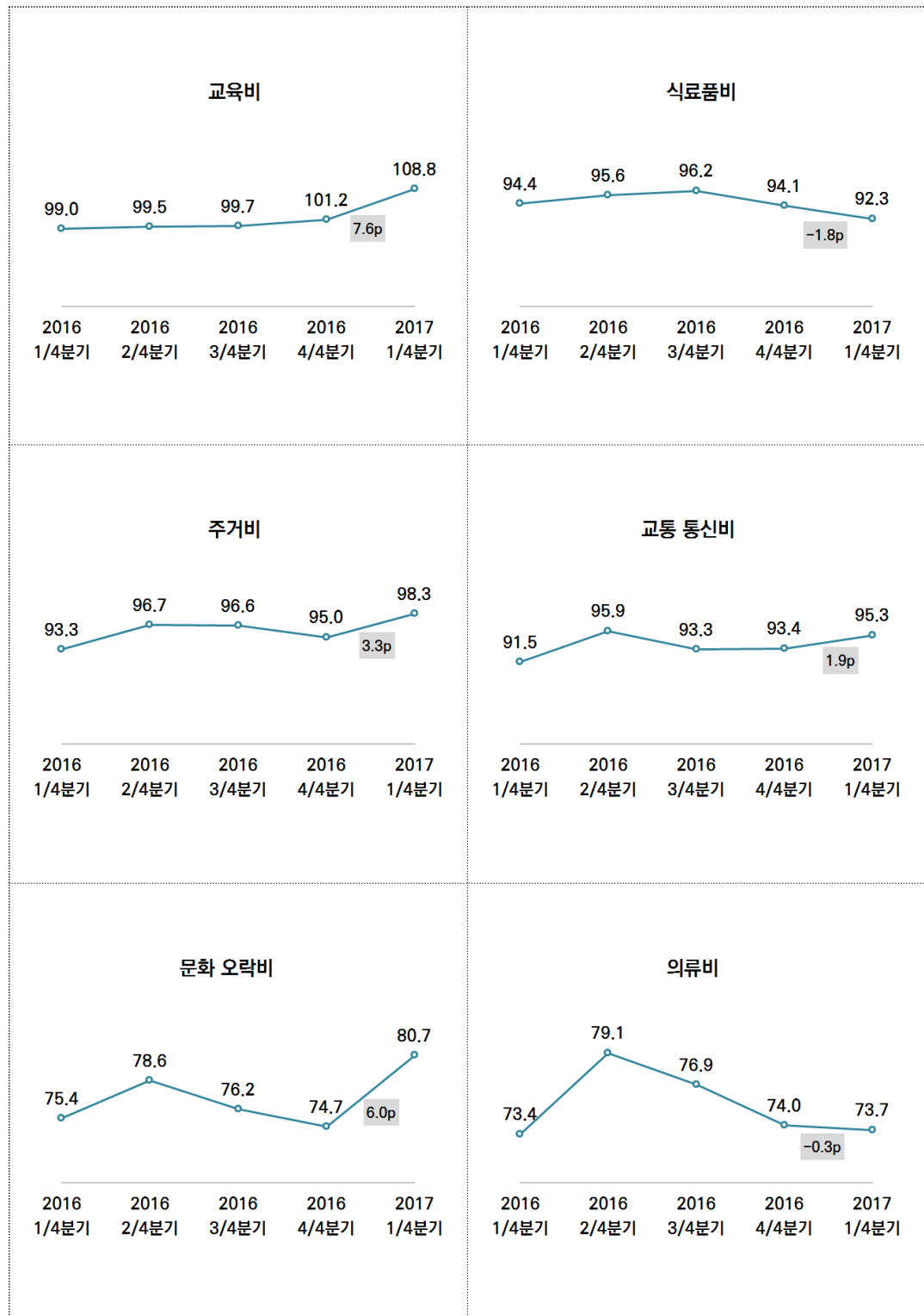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 의사도 하락

- 2017년 1/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2.7p 하락한 82.6
 - 작년 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전 분기 대비 10.2p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1.0p 내외로 소폭 하락
-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66.4로 전 분기 대비 7.0p 하락
 - 지난 분기 70대로 떨어졌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60대를 기록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기 불투명, 대출금리 인상 등이 주택 구입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하였고, 특히 30대 이하에서 14.0p로 가장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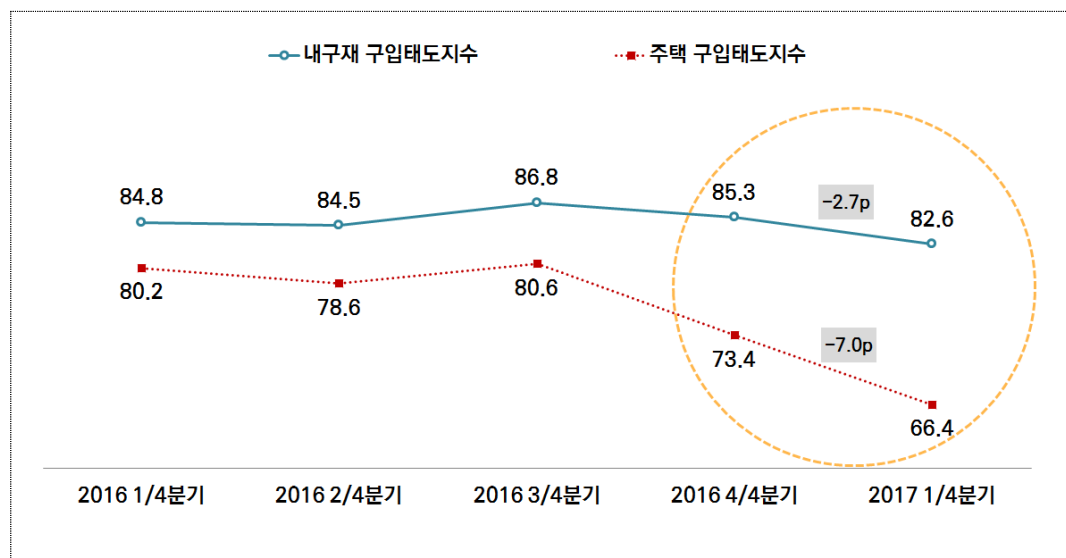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내구재 구입에 대한 기대는 동남권이 가장 긍정적

- 동남권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6.2p 상승한 90.0을 기록
 - 도심권은 82.9로 평균(82.6)을 웃돌았지만, 전 분기 대비 9.0p 하락
- 서북권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75.5로 가장 낮고, 전 분기 대비 14.0p 하락
 - 동북권(82.1)은 전 분기 대비 2.7p 하락, 서남권(80.6)은 3.8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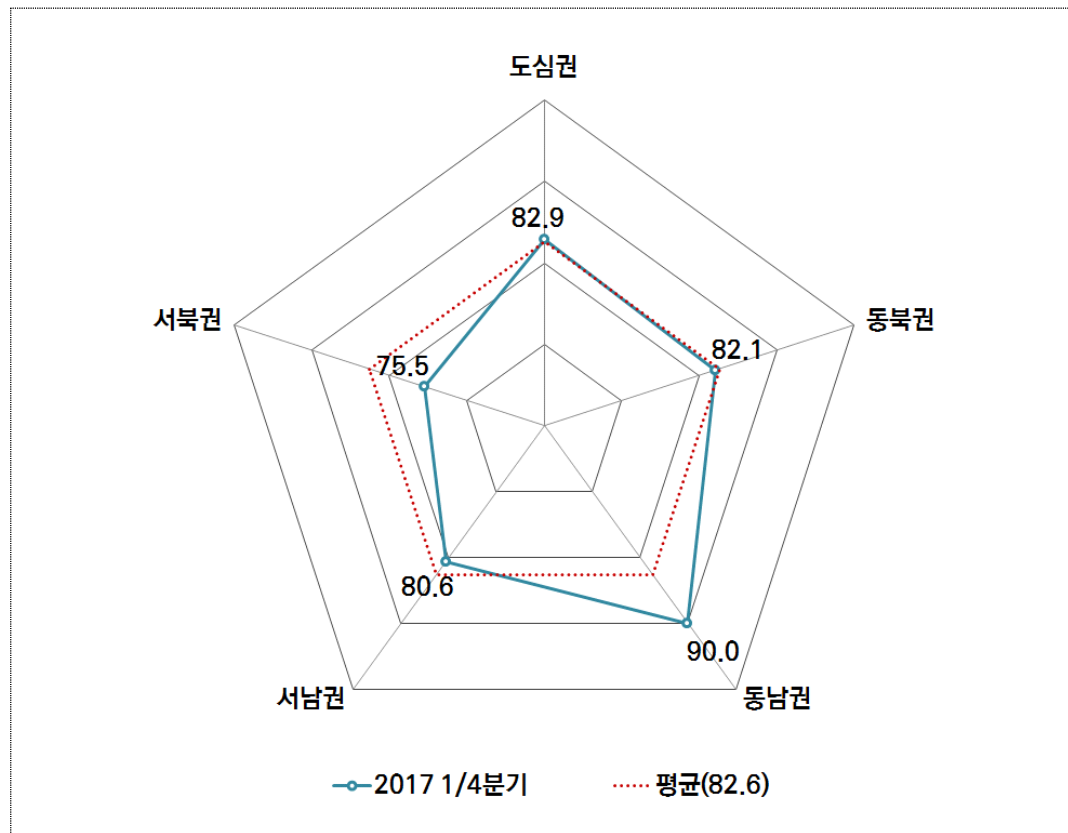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내구재 구입태도지수

주택 구입 의사는 모든 권역에서 하락

-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모두 하락
 - 동남권이 전 분기 대비 10.4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그다음은 도심권(-9.8p), 서북권(-7.8p), 서남권(-5.6p), 동북권(-5.1p) 등의 순으로 하락
- 그러나 주택 구입 의사는 전 권역이 모두 60대로 비슷하게 낮은 수준
 - 동북권이 69.3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이 62.4로 가장 낮으나, 차이는 6.9p에 불과
 - 소비자들은 거주 지역에 무관하게 현재 주택 구입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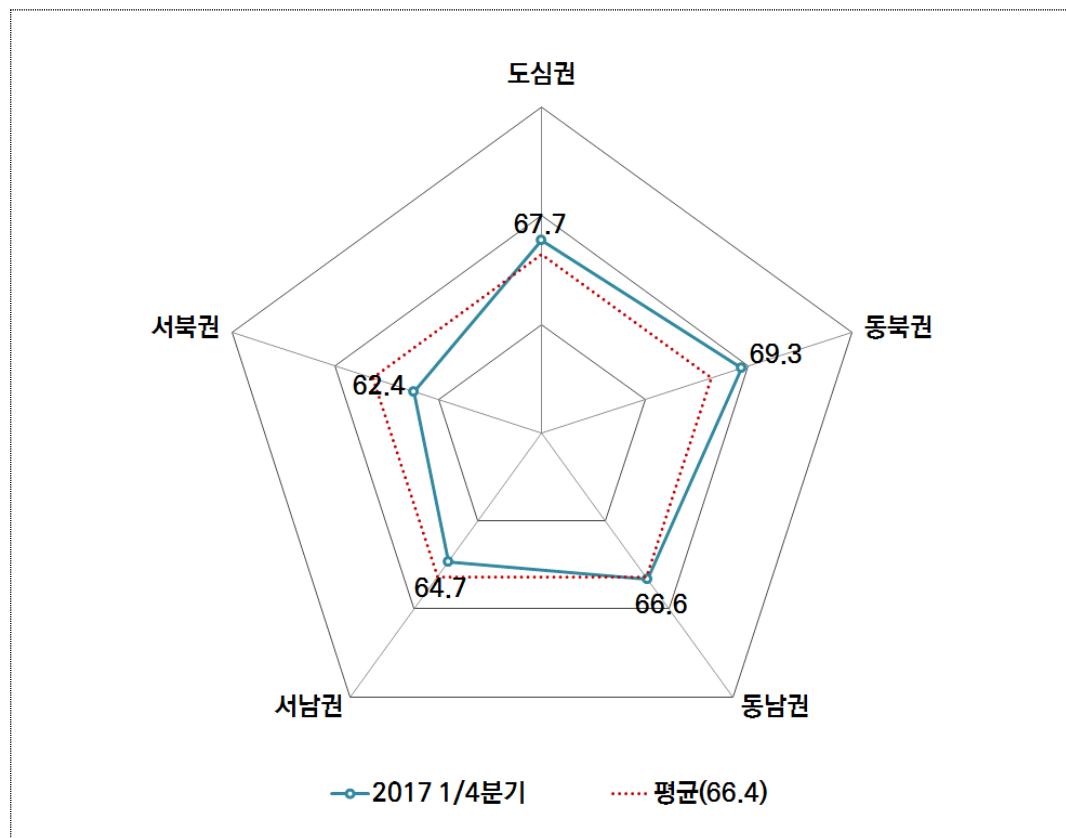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물가예상지수」만 상승,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하락

- 2017년 1/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크게 상승하고,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0p 하락한 63.5로 2008년 4/4분기(55.1) 이후 최저치 기록
 - 「순자산지수」도 전 분기 대비 8.2p 하락한 91.2로 2분기 연속 기준치(100) 하회
 - 「물가예상지수」만 12.2p 상승한 146.5를 기록하여 2013년 1/4분기(147.1) 이후 최고치 기록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
 - 특히 50대와 30대 이하가 각각 -17.5p, -14.5p로 큰 폭으로 하락해 이들 연령층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
 - 이 밖에 40대와 60대도 각각 전 분기 대비 5.2p, 9.9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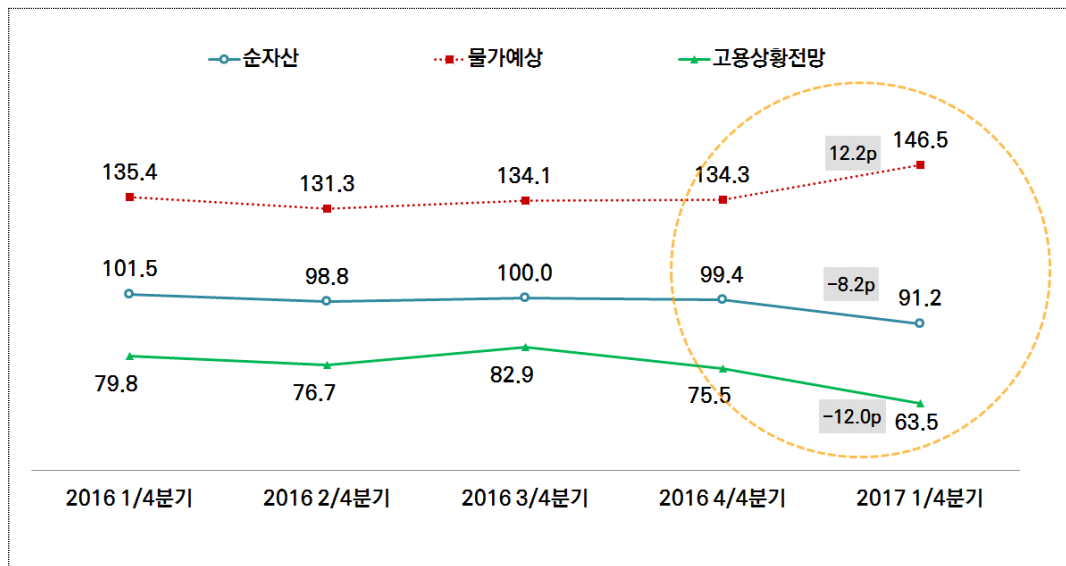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가게 부채 현황

생활 자금 중심으로 가게 부채 보유 가구 10%p 이상 증가

10가구 중 6~7가구가 부채를 보유

- 가게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64.7%로 전 분기보다 11.5%p 증가
 - 이는 생활 자금 형태의 소액 부채 보유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
- 가게 부채의 주 사용용도 1순위는 ‘주택관련 자금’이지만, 1~3순위를 합하면 ‘생활 자금’이 가장 높게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주택관련 자금’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생활 자금’(19.3%), ‘사업 자금’(16.4%), ‘자녀 교육비/학자금’(6.6%) 등의 순
 - 그러나 1~3순위를 합산한 기준으로는 ‘생활 자금’이 73.5%로 가장 높고 ‘주택관련 자금’(53.1%)을 20%p 이상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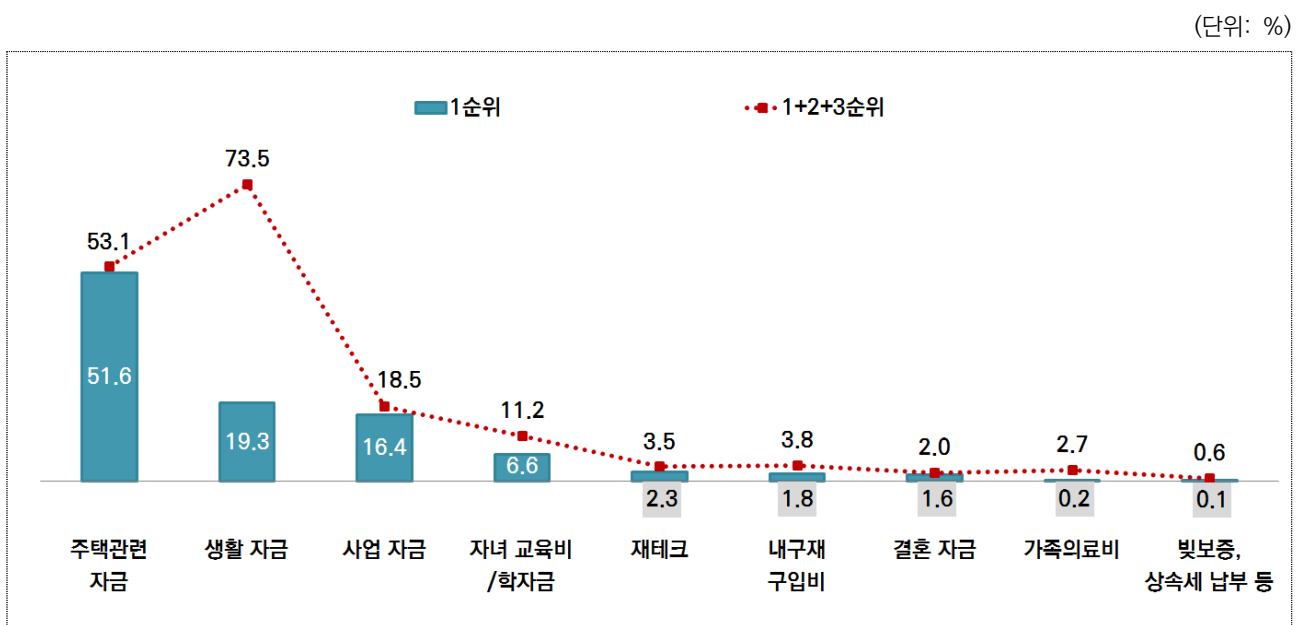


그림 15. 가게 부채의 주 사용용도

주된 대출 이용처는 시중은행과 카드사

- 대출 이용처는 ‘시중은행’이 78.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카드사’(45.3%), ‘보험사’(6.8%), ‘저축은행’(4.8%) 등의 순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이용처도 ‘시중은행’이 76.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카드사’(13.2%), ‘보험사’(3.9%) 등의 순으로 동일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지만, ‘카드사’라는 응답 비율은 대체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
-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신용능력 부족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서비스나 할부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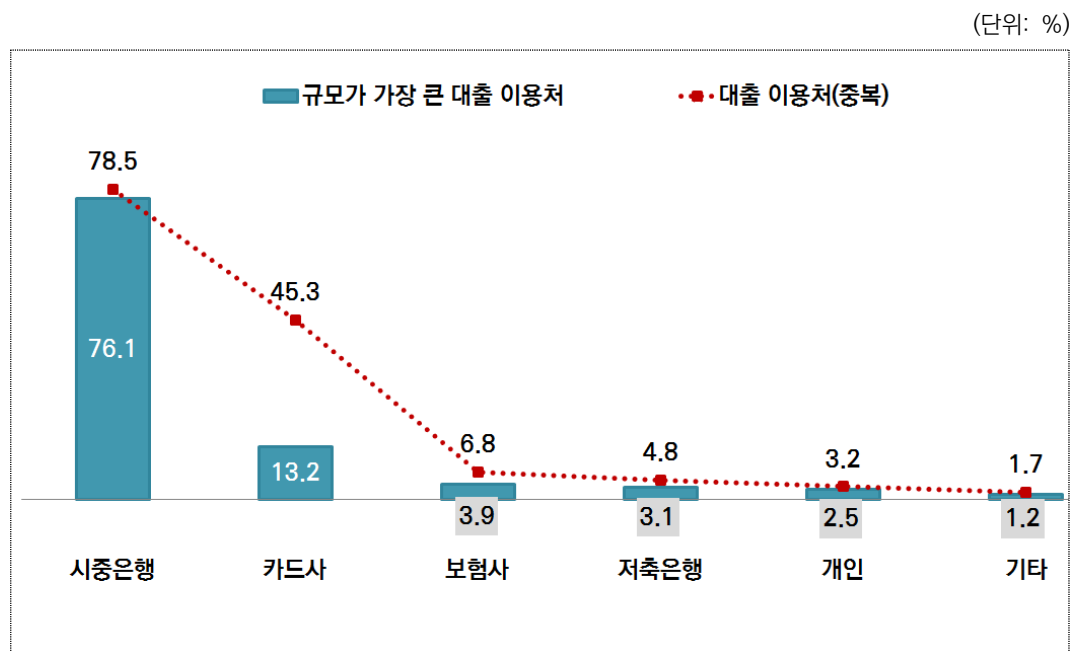


그림 16. 대출 이용처 및 규모가 가장 큰 대출 이용처

주된 대출 형태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 대출 형태는 ‘부동산 담보대출’(58.8%)과 ‘신용대출’(58.0%)이 비슷하게 높게 조사
- 다음으로 ‘예금/적금/보험 담보대출’(10.6%), ‘보증서 대출’(1.3%) 등의 순
- 기타 형태로는 ‘친인척’(1.4%), ‘지인’(0.3%), ‘자동차할부대출’(0.2%), ‘마이너스통장’(0.2%), ‘버팀목대출’(0.2%) 등을 활용
- 규모가 가장 큰 대출 형태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56.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신용대출’(35.1%), ‘예금/적금/보험 담보대출’(5.6%) 등의 순
- 이밖에 ‘친인척’(1.4%), ‘보증서 대출’(0.9%), ‘지인’(0.3%), ‘자동차할부대출’(0.2%) 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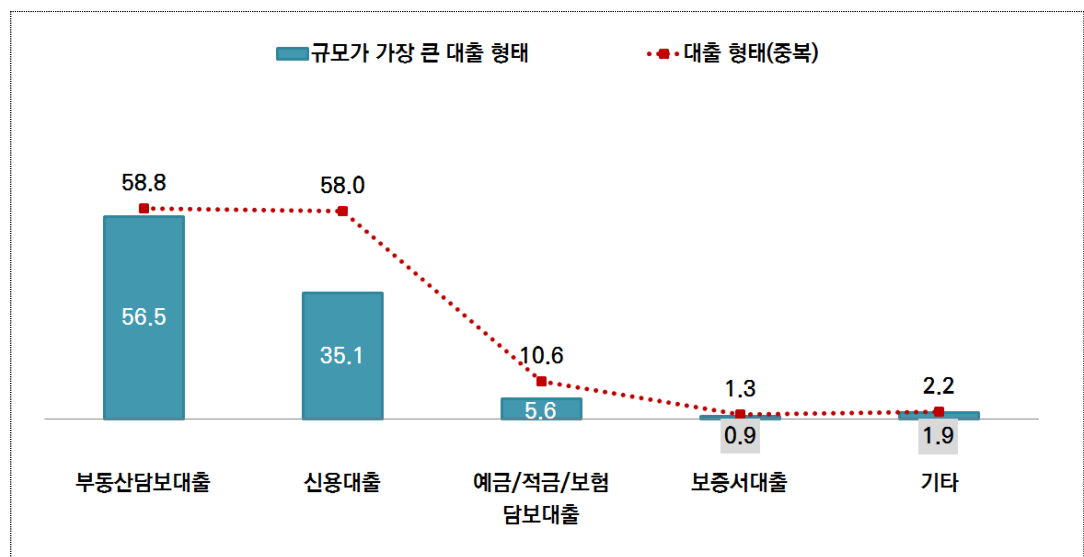


그림 17. 대출 형태 및 규모가 가장 큰 대출 형태

- 가계 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가장 많은 편
- ‘원리금 상환’이 64.7%, ‘이자만 상환’이 32.9%, ‘상환 안 함’은 2.4% 등의 순
- 월 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평균 18.7%로 전 분기 대비 1.7%p 증가

대출금리 인상 시 소비수준 변화가 큰 품목은 의류비와 문화오락

- 대출금리 인상 시 전반적으로 소비수준을 줄일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의류비’, ‘문화오락비’ 등의 소비를 많이 줄일 것으로 전망
- ‘교육비’는 대출금리가 인상되어도 소비수준이 기준치(100)를 소폭 밑도는 98.9로 큰 변화가 없었고, ‘개인보장지출’도 소비수준을 줄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고 조사
- 그러나 ‘의류비’와 ‘문화오락비’는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소비수준이 각각 71.5와 74.9로 내려가 대출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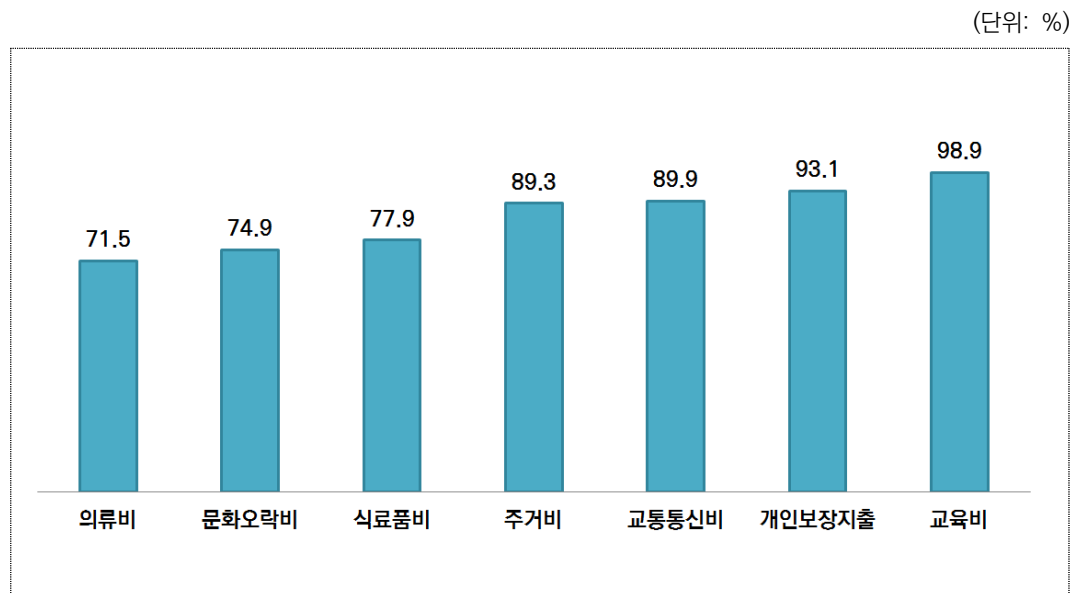


그림 18. 대출금리 인상 시 품목별 소비수준 변화

향후 부채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가 28.7%

- 향후 부채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5년 이내’ (19.5%), ‘1년 이내’(16.9%), ‘3년 이내’(15.3%) 등의 순
- ‘20년 이내’도 11.3%로 많은 편이었으며, ‘20년 이후’도 8.4%를 차지

부록: 2017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4.4로 전월 대비 1.1p 소폭 상승하였으며, 가계수입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p 하락한 97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발생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6년 1/4분기	95.0	90.0	99.4	67.1	78.0	84.8	80.2
2016년 2/4분기	94.1	90.5	97.8	66.2	74.9	84.5	78.6
2016년 3/4분기	96.5	91.4	97.4	72.2	78.1	86.8	80.6
2016년 4/4분기	91.1	86.7	93.0	63.4	69.7	85.3	73.4
2017년 1/4분기	83.2	75.1	87.5	40.7	68.7	82.6	66.4

주: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6년 1/4분기	106.2	87.8	101.5	79.8	135.4
2016년 2/4분기	108.0	90.9	98.8	76.7	131.3
2016년 3/4분기	108.8	89.8	100.0	82.9	134.1
2016년 4/4분기	105.3	88.7	99.4	75.5	134.3
2017년 1/4분기	102.4	91.5	91.2	63.5	146.5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7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17년 2월 20일 ~ 3월 3일).